



산림청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6. 27.(월) 09:00	배포 일시	2022. 6. 27.(월) 09:00
담당 부서	국립산림과학원	책임자	과 장 김명길 (02-961-2701)
	목재산업연구과	담당자	연구사 김민지 (02-961-271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목재 활용 방안 모색

- 지역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자문회의 개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지난 6월 24일(금)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목재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목재 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를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중립 재료인 목재의 이용 확대를 위한 도시목조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목재로 대체할 수 있는 도시시설물의 발굴 및 목재특화거리 모델 개발과 같은 국산 목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또한, 국내외 선진국의 목재 이용 사례 및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분석을 통해 국산 목재의 이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임창득 박사가 ‘국외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산림청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지역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임창득 박사는 국외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법률, 제도, 캠페인을 소개하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일본의 지역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 목재생산 및 소비 현장의 자문을 위해 참석한 춘천시청 및 대구광역시청 담당자와 목재 분야 전문가들은 지역 목재 이용에 기틀을 마련하는 방안과 더불어 목재 사용에 따른 여러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자문회의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잘 담아 「지역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지역 내 목재 이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첨부 1. 자문회의 사진 별도 첨부

